



프로야구 40번째 시즌 “플레이 볼”

3일 정규리그 ‘유관중’ 개막 중단 없는 무결점 완주 도전 동계훈련·SSG와 추신수 도쿄올림픽 휴식기 변수

중년에 접어든 프로야구가 40번째 시즌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의 두 번째 시즌은 작년과 달리 출발부터 관중과 함께 호흡한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5월 5일야 무관중으로 개막했다.

올해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 조치를 준수해 4월 3일 정규리그 개막전부터 수도권 서울 잠실·고척, 인천, 수원구장엔 수용 규모 10%, 비수도권 부산·대구·창원·광주·대전은 30%의 관중을 받는다.

프로야구는 전에 겪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에도 2020년 팀당 144경기를 모두 치르고 한 번의 리그 중단 없이 완주했다.

KBO 사무국, 프로 10개 구단이 공유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무결점 완주에 도전한다.



SSG 랜더스 추신수, 한화 이글스 수베로 감독, LG 트윈스 수아레스.

이번 시즌의 변수는 국내 동계 훈련에 따른 초반 페이스 양상, 새 식구 SSG 랜더스와 추신수의 등장, 도쿄올림픽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여의치 않자 10개 구단은 국외 훈련을 포기하고 모두 국내에서 겨울을 냈다. 여러 구단의 현장 관계자들은 연습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후반기 뒤집기보다는 4~6월 시즌 초·중반 성적에 따라 가을 야구 진출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KBO리그 특성상 국내 동계 훈련 여파는 초반 구도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올해 1월 말 터진 신흥 명문 구단 SK 와이번스의 매각 소식은 야구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SK를 인수한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팀명을 SSG 랜더스로 바꿨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6년 동안 아시아 타자의 일골로 맹활약한 추신수(39)의 SSG 합류는 올해 프로

야구 흥행 기록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20~30홈런은 너끈히 때릴 것이라는 예상에 지배적인 가운데 추신수, 최정, 제이미 로맥, 최주환, 한유섭 등 SSG 홈런 군단이 수립할 대포의 새 역사에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프로야구는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리그를 중단한다. 20일 남짓한 도쿄올림픽 휴식기는 이후 재개될 하반기 리그 순위 싸움의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창의적인 수비 시프트로 새바람을 몰고 온 한화 이글스의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과 새로 지휘봉을 잡은 류지현 LG 트윈스 감독, 김원형 SSG 감독, 흥원기 키움 히어로즈 감독은 조보 감독의 신선함으로 팬들에게 다가간다.

외국인 선수 중에선 지난해까지 빅리그에서 뛰 투수 앤드루 수아레스(LG)와 다니엘 멘텐(KIA)이 주목을 받는다.

작년 통합 챔피언 NC 다이노스와 LG가 일찌감치 ‘2강’으로 지목된 가운데 나머지 팀들의 자존심을 건 스피드가 출발 총성과 함께 시작된다.

연합뉴스



제주유나이티드 ‘동백꽃’ 달고 뛰다

4월 6경기 제주4:3 아픔 나뉘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4월 한달간 매 경기마다 제주 4:3희생자 추모 상징인 ‘동백꽃’을 유니폼에 달아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

제주 4월 열리는 총 6경기에서 유니폼 가슴 부위에 ‘동백꽃 패치’를 부착해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전국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 4월 4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 이어 7일 강원전(홈), 11일 수원전(홈), 17일 인천전(원정), 21일 서울전(홈), 24일 포항전(원

정)을 치른다.

현재 제주 선수단은 동백꽃을 가슴에 달고 훈련과 연습 경기에 임하고 있다.

이규혁은 “제주 구단의 선수로서 제주도민의 아픈 과거를 공감하고 있다”면서 “상징적이지만 이 패치를 달고 경기에 임함으로써 팬들에게 아픈 역사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그동안 동백꽃 달기 캠페인과 4·3 유족회 아이들을 경기장으로 초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대학교 3학년 전철영 전국검도대회 개인전 3위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는 제주대학교 3학년 전철영 선수가 2021 SBS배전국검도대회 대학부 개인전 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철영 선수는 8강전에서 용인대 김찬술 선수를 머리치기로 1대 0로 꺾으며 4강에 진출했지만 4강전에 만난 조선대 양용 선수에게 0대 1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오은지기자



박동훈(왼쪽) 감독과 전철영 선수.

손흥민, 독일 뮌헨 이적설 ‘솔솔’

토틸과 재계약 담보 상태 “1년을 기다려도 영입할 것”

독일 프로축구의 ‘절대 1강’이자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럽 무대를 제패한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29·토틸) 영입을 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1일(한국 시간) “뮌헨이 손흥민 계약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토틸에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 1년을 기다릴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2015년 8월 토틸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까지 5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EPL)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으며 2023년 6월이면 토틸과 계약이 종료된다.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 토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단이 20만 파

운드(약 3억 1000만원) 이상의 주급을 조건으로 5년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협상은 6개월 가까이 답보 상태다.

재계약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설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앞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유벤투스(이탈리아) 등 빅클럽 이적설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독일 최강’ 뮌헨이 러브콜을 보냈다.

EPL 입성 전 레버쿠젠에서 뛰며 독일 분데스리가를 경험한 손흥민에게는 꽤 반가운 제안일 수도 있다.

풋볼 인사이더는 “뮌헨은 토틸과 계약 기간이 남은 손흥민을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뮌헨은 현재 세르주 나브리, 칸슬리 코망, 리로이 자네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손흥민이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라켓에 화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드스에서 열린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에서 러시아의 다니 일 메드베데프가 스페인의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야구에게 패해 한 뒤 코트에서 라켓을 부수고 있다.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현통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인함으로써 실천하여 소상공민 활동조항 실천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비영사업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명 상가매장

일정리 카페

세화카페

유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운 물류센터